



“관심일법으로 모든행 다스려” 17 선지식·법산 스님

“월초 스님 사상 조명” 4 봉선사·문조현양사업 본격화

“바른 호흡·자세 참선에 있어” 13 강의실·90세 박희선박사 건강강좌

“만다라 보기만해도 행복” 15 동휘 스님 ‘해피부다...’ 펴내

एं터리 ‘불교 상조’ 판친다

불자 피해 속출, 종단 차원 상조서비스 제공 등 대책 절실

부산에 사는 A불자는 얼마 전 모친상을 치우며 분통을 터뜨렸다. ‘불교식 장례’를 여법하게 치를 수 있다가 상조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막상 장례를 치르니 불교식이라고 특화된 것은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준다”던 상조회사는 A씨에게 운구차·도유미 비용 등 추가비용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대전의 B씨는 장례서비스조차 받지 못한 경우. 다니던 사할 스님 소개로 2003년 3월, 00상조회원에 가입한 B씨는 매월 3만원씩 5년간 불입했지만 얼마 전 업체가 부도나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잘 살자는 웰빙에 이어 잘 죽자는 웰다잉(well-dying)이 사회적 관심을 끄는 가운데, 불교식 장례 제공을 빌미로 접근한 일부 업체들에 불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상조업체 난립에 고객 피해 잇따라

상조업체는 현재 약 300여개 상조회사가 약 200만 회원을 유치해 성업 중이다. 공정위 추산 시장규모만 7000억원대다. 하지만 상조회사 관련 규정이 없어 부실 상조회사 난립과 그에 따른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05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해약 관련 상담이 69.1%로 가장 많고,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를 청구한 경우는 계약 36.2%, 품질 35.8%, 부당행위 15.5% 등 순이었다.

안우환 교수(울지대) 등 장례전문가들은 “상조업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를 막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상조회사 설립기준 등을 명시

한 ‘상조업법’ 제정안을 7월 23일 발의했다.

◇이웃 종교인이 불교장례 영입하기도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일부 업체가 영입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교계는 상조업자 사이에서 불투명성이 불린다.

일부 사람은 이익금을 나누자는 제의에 혹한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상조회 가입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교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불교식 장례를 제공한다고 회원을 유혹하는 정작 제대로 된 불교식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불교식 장례가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업체들이 엔터리 불교장례를 제공한다든 제보에 몇몇 업체 확인 결과, 제대로 된 불교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B상조회사 행사팀장 유모씨는 “불교식 장례서비스 매뉴얼은 없고 절차는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B상조회사 담당자도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자 연락이 끊겼다.

A상조업체 등 타종교인이 대표인 일부 업체는 불상·불화·연꽃 등을 넣은 흥보물을 사용하며 스님을 앞세워 사찰대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도 밝혀졌다.

불교 상조 연합회 유재철 대표는 “전국 상조회사 300여곳 중 80~90%가 개신교인이 운영한다. 이들 상조회사로 매년 수십억원이 유입된다”고 주장했다.

◇사찰 단위 상조계 운영 등 대안 마련해야

대다수 장례문화연구자들이 불교

와 지역민을 중심으로 가입했다. 전문가들은 “여건상 사찰 자체 상조회를 운영할 수 없다면, 지역사찰들이 연계해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다. 이마저도 어려워지면 업체를 엄선해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현재 15년간 불교전문 장례업체로 활동한 연합회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등과 연계한 사업확장을 준비 중이다.

◇종단 차원 표준의례 제정 등 대책 마련 시급

사찰 상조회 활성화 등과 더불어 종단 차원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계종을 예로 포교원에 (가칭)장례국 등을 신설해 종단차원에

서 상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례절차 등에 관한 표준의례 제정도 시급하다. 현재 불교식 장례는 <석문의범>을 기준으로 진행되지만, 유교식 장례와 혼용된 경우가 많아 구분이 쉽지 않다. 엔터리 불교식 상조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강력히 제재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도신)은 일부 업체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며 ‘조계종 상·제례 문화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뒤늦게나마 시작된 포교원 사업이 불법하게 회화돼 특화된 ‘불교 상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조동성·노덕현 기자



한국 알고 싶어요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 중 지도자급 인사 20명을 대상으로 ‘중앙아시아 고려인 지도자 한국문화체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그들에게 한국의 불교문화와 자연을 체험케 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정신과 전통을 심어주고, 고려인 사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행사, 송광사 등 국내 유명 사찰과 명소를 둘러본 방문단이 24일 서울 조계사를 방문해 영공 스님(조계사 선감)으로부터 조계사의 역사와 한국불교에 대해 듣고 있다.

제1회 이상시문학상 시상식 성료



제1회 이상시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한 문인들. 왼쪽부터 한분순, 최동호, 이근배, 이수익, 이승훈, 김광림, 김제현, 오세영, 송준영 시인.

현대불교신문사와 시와세계사가 공동 제정한 ‘제1회 이상시문학상’ 시상식이 9월 23일 오후 6시 조계종 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광림 정진규 오세영 이근배 최동호 김제현 한분순 장영우 등 문단의 원로종인과 젊은 시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상의 제정과 첫 수상자를 축하했다.

첫 수상자인 이승훈 시인(한양대명예교수, 수상작:모두가 예술이다)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이 주어졌다. 한편, 현대불교신문사와 시와세계사는 이날 시상식을 기념해 제1회 이상시문학상 수상자와 추천자품을 묶은 수상작품집 <모두가 예술이다>를 펴냈다.

임연태 기자

社告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종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의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해탈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차)/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익 대표(02)2004-8200
- 법보시는 1구좌 1,000원 이상 -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6(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차법보시 문화부 주요 부서에 발송> 독자께서 보내주시는 법보시 후원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 차관실, 총무실, 기획조정실 등 주요부서에 본지 699호부터 발송합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강영화 변호사 | 031)438-3054 010-7504-4521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순 황산철 원액 100%”
청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물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원형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육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_대구 정지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만월등(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창덕연등 경기도 평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주름등, 전선시공,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